
옛말의 아름다움과 사투리

강인숙 ·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영인문학관 관장,
문학평론가

1. 옛말의 아름다움

내가 고어(古語)의 아름다움에 눈을 뜬 것은 고 3 때 “동동(動動)”을 배우면서였다. 피난 시절이라 고전 선생님이 안 계셔서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 왔다. 연세가 높으신 남자 선생님이셨다. 그 선생님이 칠판에 다음과 같은 시를 써 놓고 읊어 나갔다.

正月스 나릿 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흥논디
누릿 가온디 나곤
몸하 흥올로 녀셔
아으 動動다리

알 수 있는 단어가 몇 개밖에 없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하시더니 선생님은 다시 한번 낭송을 시작했다. 억양과 장단을 살려 가며 낭송을 하니 운율이 너무나 아름다워 감동을 받았다. 모르는 말이 많아 주문 같은 것이 오히려 신비감을 더해 주는 것 같았다.

나릿물=넷물
어저 녹저=얼었다 녹았다
하올로=홀로
몸하=몸아
널셔=살아가는구나

선생님이 모르는 단어들을 풀이해 주셨다. 의미를 알고 보니 옛말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어보다 훨씬 유현(幽玄)하고 음악적이어서 나는 곧 그 말들에 사로잡혔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아름다운 어휘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그건 어머니가 보시던 옛날 성경책의 어려운 문장들이, 현대어보다 훨씬 시적이고 음악적이었던 것을 상기시켰다.

“정월 나릿물이 어저 녹저” 하며 하느적거리는 풍류 위에 ‘하올로’ 살아가는 ‘몸’의 외로움이 우아하게 얹히면서 “동동”이라는 월령가(月令歌)의 첫 달이 시작되고, 그 감흥은 열두 달 내내 흥청거리며 이어져 갔다. 거기에서는 불은 ‘켜는’ 것이 아니라 ‘혀는’ 것이고, ‘오얏꽃’은 ‘윗고지’이며, ‘피꼬리’는 ‘곳고리새’였다. 삼십 년 전 평창동에 이사 왔던 첫 여름에, 마당에서 웬 새가 ‘곳고리꼬’ 하는 부드럽고 예쁜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큰 동서가 그게 피꼬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그때 다시 “동동”의 세계로 돌아가 옛날의 의성어의 정확함과 그 발음의 유연함에 경탄했다. 그러면서 새들은 아직도 된소리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우는데,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각박해져서 그것을 된소리로 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 밖에도 “동동”에는 오늘날에는 쓰지 않는 ‘즈이’라는 인상적인 낱말이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외모와 인물의 분위기를 전체를 ‘즈이’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이다. ‘무슨 연고로’를 ‘므슴다’로 축약한 것도 마음에 들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매력적이었던 것은 ‘하’라는 존칭 호격조사였다. ‘몸하’, ‘달하’, ‘님하’, 하는 발음 악센트를 넣어 발음하면 대상의 사물들의

품격이 아주 높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친구들과 다른 명사에도 ‘하’를 붙이는 장난을 하며 우리는 한동안 즐거웠다.

입시를 위해 배운 옛 시가 중에는 송강의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문과대 학장이 송강 송배자인 방종현 선생이라 정철의 시는 반드시 나오고, 조흔과 선생님이 서울대 지망생들에게 송강의 시가를 열심히 가르치셨다. 수학을 못하는 나는 국어를 만점을 받아야 합격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송강의 시가를 딸딸 외우고 다녔다. 선생님의 예상이 맞아서 입학 시험에 송강의 시조가 나왔다.

어와 棟樑량材지를 더리하야 어이할고
헐뜨더 기운집의 議의論논도 하도할샤
못지위 고자자들고 헤뜨다가 말녀나다

시험이 끝나서 동대신동의 전차 종점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공대를 지망한 그 친구가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르겠어서 ‘동량재’를 ‘동량질’로, ‘지위’를 ‘지위(地位)’로 해석해서 답을 써 버렸다고 떠들어 대서 줄 서 있던 수험생들이 한바탕 즐겁게 웃었던 일이 생각한다. ‘棟樑材’는 대들보 같이었고, ‘지위’는 목수, ‘고자자’는 목수들의 연장인 먹통과 자였던 것이다. 집은 헐고 뜯어져 엉망이 되었는데, 동량재를 다룰 능력이 없는 서툰 목수들이 연장통을 들고 허둥거리는 한심한 시국이 눈에 선하게 보이게 하는 명사인데, 송강 무렵의 어휘들이 오늘날의 것과 너무 달라서 그런 코미디가 벌어졌던 것이다.

정송강은 언어의 마술사여서 시들이 무척 아름다워, 입시 공부는 날마다 기쁨을 얻는 환희의 연속이었지만, 그중에서도 훈민가의 조사법(措辭法)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형제끼리의 송사를 말리는 시조에 “종귀 밧귀는 엇기에 쉽거니와 어디가 또 어들 거시라 흘끗할곳 하난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송사를 할 정도로 얽히고설킨 혈육끼리의 복잡한 갈등을 ‘흘깃할 것’이라는 의태어 하나로 간단히 처리한 솜씨가 탁월했다. 훈민가는 교훈을 목적으로 하는 시인데도 명인의 손에서 나오면 이런 멋진 시가 된다는 사실이 감명 깊었다.

송강에게서는 외국어처럼 낯선 ‘고자자’나 ‘지위’ 같은 단어 이외에도 ‘괴다(사랑하다)’, ‘헤뜨다(허둥거리다)’, ‘머흘다(힘하다)’, ‘하다(많다)’, ‘소소리 바람(쌀쌀한 바람)’, ‘잔나비(원숭이)’, ‘파람(휘파람)’ 같은 옛말들을 배웠다. ‘괴다’는 ‘사랑’을 표현하는 말치고는 덜 예쁜 편이지만, “아소 님하 도람도르샤 괴이소서”(정과정곡)처럼 문맥을 이루면, 다른 말의 음악성이 그 약점을 보완한다. ‘헤뜨다’는 ‘흘끗할긔’처럼 맛깔스러운 어휘이고, ‘머흐다’는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라는 대목에서처럼 이미 마음이 어긋난 님과 나 사이에 암담하게 펼쳐져 있는 장애 기류를 너무나 실감 있게 표출하는 어휘이며, ‘하다’도 ‘많다’보다는 활음조(euphony)가 풍부하다.

대학에서는 양주동 선생님에게서 고려 가요와 두시언해를 배우면서 고려의 미학을 다시 터득해 나갔다. “서경별곡”에서 나는 다음 구절을 특히 좋아했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긴히쑤 그츠리잇가
 즘흔히를 외오곰 녀신들
 신탈든 그츠리잇가

‘온(百)’, ‘즈믄(千)’ 같은 고유의 수사(數詞)를 우리는 그때 처음으로 배웠고, 그 아름다움에 끌려갔다. 그뿐만이 아니다. ‘바회(바위)’, ‘외오곰(외롭게)’, ‘긴히쑤(끈이야)’ 등의 어휘들은 또 얼마나 시에 어울리는 아어(雅語)들인가.

이랑공 더링공 햏야
 나즈란 디내와 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호리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피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

이것은 “청산별곡”에서 학생들이 모두가 좋아하던 구절이다. ‘이렁공 더렁공’의 음악성과 “미워할 이 사랑할 이”가 ‘미리, 괴리’로 압축되는 고어의 의미 수용 폭이 넉넉함이 매력 포인트였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청산을 무조건 유토피아로 보는 시조들과는 다른 것이 있었다. 청산에서 홀로 밤을 맞는 사람의 처절한 외로움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다. 누가 던졌는지, 어디를 향해 던졌는지 모르는 채로 느닷없이 날아온 돌에 맞아, ‘미리도 괴리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사람의 고통의 질량이 리얼하게 표출되어 깊은 감동을 주었다.

“정읍사”의 압권은 ‘진데’라는 말의 압축성과 다의성에 있다. 질척한 곳은 귀로에 있는 길의 흙탕일 수도 있지만, 사내들이 저녁때 빠지기 쉬운 성적인 유혹의 구렁텅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말을 최근에도 쓴 일이 있다. 혼자 살면서도 ‘진데를’ 디디지 않고 견디신 어느 어머니에 대한 찬사에서였다.

용비어천가에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새”라는 아름다운 구절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뿌리’는 ‘불휘’이고 ‘흔들린다’는 우아하게도 ‘미다’라는 두 음절로 압축되고 있다. 그 밖에도 “올하 올하 아련 비올하”(만전춘)의 ‘올(오리)’이나 ‘접동새’ 같은 새의 이름도 옛것이 더 시적이다. 그런 언어적 유산에서 “접동 접동 아흐래비 접동” 같은 아름다운 현대 시가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다.

2. 사투리

“가시리”에는 “잡사와 두어리마는 선흐면 아니올세라”라는 대목이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선흐면’이라는 단어다. 양주동 선생님은 그것을 ‘선뜻선선’ 등의 ‘선’이라 해석하셨고, 박병채 선생님은 ‘그악스러우면, 혹은 까딱 잘못하면’이라고 풀이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다.

함경도에서는 나 어릴 적에도 그 말이 유통되고 있었는데, 뜻은 ‘감정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했던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현대어에서 감정적인 데도 ‘텐다’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선하면’은 감정적으로 가볍게 데는 것 같은 상태라 할 수 있다. 하루쯤 집에 안 가게 할 자식은 있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어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그리운님을 보내 준다는 그 대목은,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황진이)와 유사한 심리 상태를 그린 것으로, 임자 있는 남자를 오래 거느리기 위한 계략적인 양보 같은 뜻도 함유되어 있어 그 말에는 아주 절묘한 맛이 있다.

이따금 학자들이 북한말과 남한말의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오는 때가 있다. 서북 지방의 사투리를 해방 후에 생겨난 말로 간주하는 일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서북 지방은 서울에서 멀어서, 중부 지방에서 일어난 구개음화 현상이나 순경음의 탈락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아서 중세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평양에서 ‘던깃불이 번덕번덕’거리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함경도에서는 순경음이 없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비읍이 그대로 발음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고와한다’를 ‘곱아한다’고 발음하셨다. 그래서 “엄마, 할아버지가 우리 보고 자꾸 고브다고 그러는데 무슨 뜻이야?” 막내는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한 일도 있다. ‘웃읍다’는 말도 마찬가지로이다. 함경도에서는 우습다가 ‘웃브다’가 되고 ‘웃으워’는 ‘웃으버’가 된다. 그 점에서는 경상도도 유사하다. ‘무서워서’를 ‘무서바서’라고 하지 않는가. 함경도에서는 아직도 아저씨가 ‘아재비’이고 아주머니는 ‘아지미’이며, 거웃은 ‘거부지’다. 재미있는 것은 눈썹을 ‘눈 거부지’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거부지’는 음모만이 아니고 몸에 난 털 전체를 의미한 것이 아니었을까? 중세 국어 학자인 이남덕 선생님이 ‘말배’(몰밤)라는 단어를 내가 알아맞히자 너무 신통해하시던 일이 생각한다.

전라도에서는 또 아래아의 음가(音價)가 ‘야’가 아니라 ‘오’였다. 군산에 피난을 가 보니 사람들은 ‘파리’를 ‘포리’라 하고 있었고, ‘팔’은 ‘포’, ‘팔뚝’은 ‘폴뚝’이었다. 제주도와 거제도 등에 서울과 다른 어휘들이 남아 있는 것도 같은 이치가 아니겠는가?

해방 후에 잠시 같은 집에 산 일이 있는 아버지의 친구 분이 우리 형제를 보고 북한말과 남한말을 다 잘한다고 ‘양개 국어를 하는 아이들’이라고 놀린 일이 있다. 하지만 북한말은 딴 나라말이 아니다. 중세 국어의 어휘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국문과 학생들이 어청도나 제주도 같은 섬으로 고어 채집을 떠나듯이 북한으로 고어 채집을 떠날 수 있다면 미해결의 고어의 의미들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사투리는 언어유통에 장애가 되는 지리적 여건이나 거리에서 생겨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매스컴의 보급으로 사투리가 자꾸 없어져 간다. “오매! 단풍 들것네”라든가 “가시내야 가시내야 가시내야 각시내야” 하는 시구들은 더 이상 나오기 어렵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것은 고어의 현대화다. 고어는 한자 어휘가 쳐들어오기 이전의 우리말의 본연의 모습을 지닌 귀한 문화적 유산이다.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부활하여 현대에도 쓰이는 적절한 단어들도 더러 있다. ‘건널목’ 같은 것이 그 좋은 예다. 기차 자체가 일제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옛말에는 철도의 건널목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었다. 그래서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일본 말로 ‘후미키리’라고 했었다. ‘건널목’은 어색하지 않으면서 ‘후미키리’의 의미망을 제대로 표현하는 단어여서 무리 없이 정착이 된 것이다. ‘갯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路肩(노견)’이라는 이상한 단어가 지금은 ‘갯길’로 자리가 잡혔다. 21세기가 열릴 때 태어난 아이들을 ‘즈문동이’라 명명한 것도 재미있다. 최근에 부활하여 정착된 좋은 어휘로는 ‘나들목’이 있다. 인터체인지라는 외래어를 그 말이 몰아낸 것은 뿌리가 튼튼하고 어의가 적합했기 때문이다. ‘배움집’식이 아니라 ‘나들목’식으로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말들이 조금씩 되살아났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 참고 문헌 |

양주동(1954), 『麗謠箋注(訂補版)』, 을유문화사.

박병채(1994), 『고려 가요의 어석 연구』, 국학자료원.
박성의(1996), 『松江·蘆溪·孤山의 詩歌文學』, 현암사.